

平安監司 歡迎圖의 服飾 考察

李柱媛

I. 序를 代身해서

本稿는 國立博物館 소장 金弘道(1745~1818?)의 「平安監司 歡迎圖」의 服飾史的 研究이다. 이는 純祖代의 韓國服飾의 파노라마적 描寫로서 貴重한 資料이다. 아래에 이를 服飾史的으로 分析해 보려 한다. 애초에는 前論이 있으나, 여기서는 紙面 관계로 많이 割愛하고, 服飾史的 考察만 실는다.

II. 「平安監司 歡迎圖」의 服飾吏的 考察

一. 觀衆의 服飾

平安監司 歡迎圖에는 새로 赴任한 監司의 歡迎 잔치를 보려고 모여든 수백여명의 觀衆이 보인다. 남녀노소, 兩班賤人 할 것 없이 서로 뒤섞여서 구경을 하고 있다. 이들을 庶人·兩班·小兒·冠禮少年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服飾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1. 庶人의 服飾

庶人社會의 服飾일수록 엄격한 신분제도에 풀

이어 옷의 종류는 물론 옷입는 방법까지 계속적인 제한을 받았고, 服色과 織物에 대한 잣은 禁制令으로 服飾 전반에 걸친 다양성이나 변화는 별로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庶人们的 服飾은 白衣民族이라고 지칭될 만큼 비단옷이나 紋樣衣·染色衣는 입지 못했고, 농촌사회적 정체성 속에서 上古의 原始服飾을 그대로 준수하여 服飾文化의 발달을 저해하였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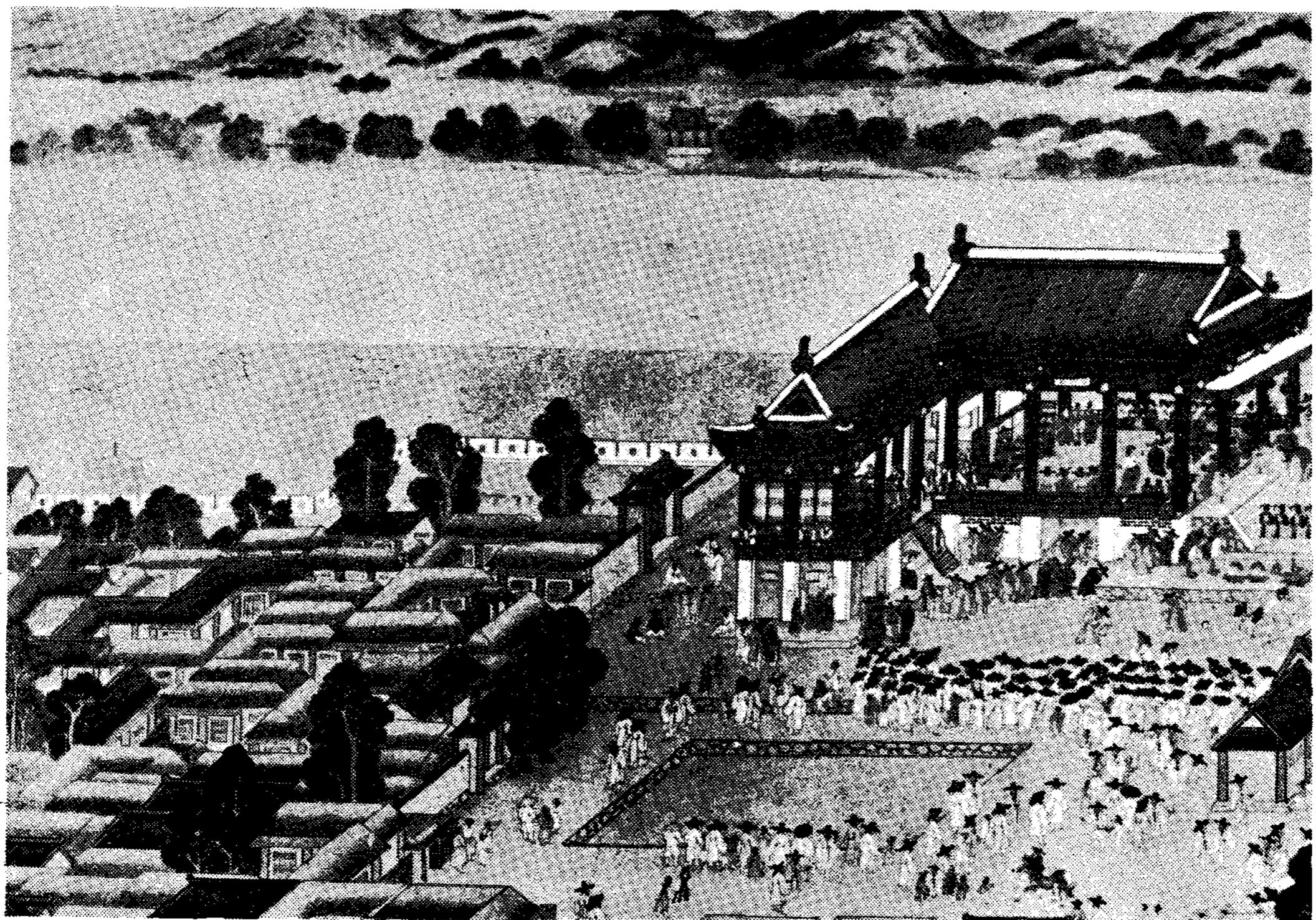
(1) 男子의 服飾

庶人男子의 기본복식은 바지·저고리이며 그 위에 겉옷으로 小氅衣를 입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바지는 대부분 窮袴를 입었는데 이것은 그 종사하는 일의 성격상 활동에 간편하도록 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대님을 매기도 하고 행전을 두르기도 하고 무릎밑까지 걷어 올리기도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저고리는 窄袖이며 옆솔기가 약간 트여 있는데 이것도 활동에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小氅衣(창옷)는 窄袖며 무가 없고 양옆이 겨드랑이까지 트인 것이 흔한 모양이지만 뒷솔기가 허리선까지 트여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服色에 있어서는 바지는 모두 白色이며, 저고리와 袍는 白色·灰色·淡青色·淡褐色 등의 담백한 색조를 사용하고 있다.

小氅衣 위에는 黑色 細條帶를 띠었으며, 笠을 보면 黑笠을 주로 썼고 平涼子나 方笠을 쓴 모습도 간혹 보인다. 黑笠은 竹을 머리카락만큼 가늘게 오려 笠檐과 帽子를 만들고 그 위에 布·絲·馬鬃·牛尾 등을 덮어 쌈 후 黑漆을 한 것으로

1) 金東旭, 增補 韓國服飾史 研究,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9, p.332.



平安監司 歡迎圖(國立博物館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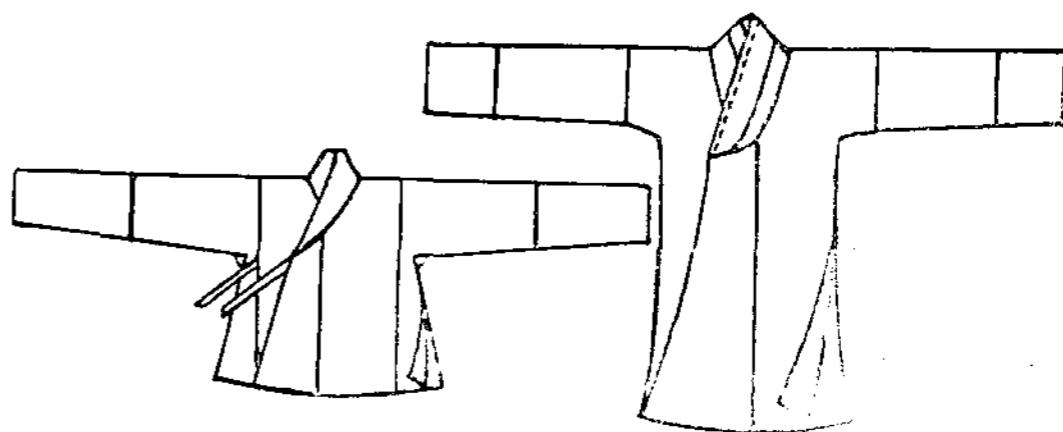
로 우리나라 「갓」의 마지막 發展型이라 할 수 있다. 이 黑笠은 班人계급에서만이 쓸 수 있었던 것이 1896년 단발령과 동시에 上下 貴賤 없이 다 착용하게 되었다²⁾고 하나, 본 그림에서 보면 이 때에도 이미 庶人이 黑笠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신발은 자세히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짚신이나 마투리를 신었을 것이다.

여기서 庶人男子의 기본복식인 바지·저고리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바지에 있어서는 애초에는 바지 밑에 대님이 달렸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대님은 언제부터인지 따로 치게 되었고, 고려시대에 와서는 감발형, 즉 脚紺型의 布로 써 무릎 아래를 둘둘 말아 깡뚱하게 하기도 하였으며, 조선왕조시대에 와서 行纏을 치게 되었다³⁾ 한다. 저고리에 있어서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듯이 直垂型의 긴 저고리에 띠를 매다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중국 冠服을 들여다 입게 되면서부터 저고리 길이가 약간 짧아지고 交袴型으로 되어 띠는 옷고름으로 변했으며, 고려시대에 와서는 몽고服飾의 영향을 받아 더욱 窪袖가 되고 길이도 더욱 짧아진 것이 조선왕조시대에 와서도 계승되어 英祖代의 風俗圖를 보면 팔이 좁고 짧은 셈을 갖고 옷고름도 30纏 정도 밖에 안 되다가 國末에 와서는 다시 늘어나고 커졌다⁴⁾ 한다.



〔圖 2-1〕庶人男子의 服飾 〔圖 2-2〕庶人男子의 服飾



〔圖 2-3〕庶人男子 저고리의 模型圖

〔圖 2-4〕小氅衣의 模型圖

본 그림에 나타난 庶人男子의 服飾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冠	服	行 纏	靴 鞋
黑笠 또는 平涼子, 方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지(白色) · 저고리(白·灰·淡青·淡褐色) · 바지 저고리 위에 小氅衣(白·灰·淡青·淡褐色) 	흰 행 전 또는 대님	짚신 또는 마투리

(2) 女子의 服飾

庶人은 班人계급과는 옷의 종류와 착의법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袍制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며 쓰개에 있어서도 장옷에 한했고, 저고리·적삼·바지·고쟁이·속곳·짚신 등이 고작인 가운데 삼회장저고리는 입지 못했으며 치마도 오른쪽으로 여미어 입었다⁵⁾ 한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女子들이 常班을 가려서 오른치마·왼치마를 구별지었으나 平安道에서는 전부 오른치마를 입은 것이 特異한 일⁶⁾이라 한다.

庶人女子의 기본복식은 치마·저고리이다. 물론 그 길이나 선이 時體에 따라 조금씩 변하기는 했으나 대체적인 구조는 國俗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치마에 있어서는 儀式 때가 아닌 다음에야 속치마 없이 바지 위에 직접 웃치마를 입었으므로 본 그림에서도 보면 치마가 바지보다도 짧아서 바짓가랑이가 치마 밖으로 많이 나

2)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梅花女大出版部, 1977, p. 361.

3) 上揭書, p. 391.

4) 金東旭, 前揭書, p. 331.

5) 柳喜卿, 前揭書, p. 506.

6) 평안남도지편찬위원회, 平安南道誌, 平安民報社, p. 8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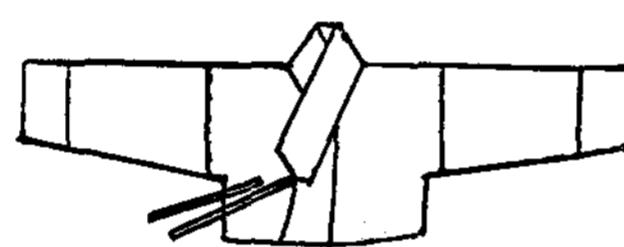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누구나 오른쪽으로 여미어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저고리에 있어서는 窄袖로서 직선적인 배래형을 보여 주며, 저고리와 치마 사이에 妓女들에게서 볼 수 있는 가리개用 허리띠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妓女들의 저고리보다는 길이가 길었던 듯하다.

服色에 있어서는 庶人男子와 거의 비슷한 담백한 색조로서 치마는 灰色·淡青色·淡褐色 등이며 저고리는 白色·灰色·玉色·淡褐色 등이다.

髮飾에 있어서는 모두 제머리만으로써 얹은 머리를 하고 있다. 얹은 머리를 할 때에는 머리를 두 절대로 땀 다음 여기에다 다래를 붙여 이마 위에서부터 엮어 뒤(정수리)로 넘겨 고정시켰다⁷⁾고 한다.



[圖 3-1] 庶人女子의 服飾



[圖 3-2] 庶人女子 저고리의 模型圖

여기서 庶人女子의 저고리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듯이 저고리 길이가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窄袖形의 直領交衽式이었으나 고려시대로 들어와 그 길이가 짧아지고 허리에 매던 띠 대신에 고름을 달게 되었으며 고려시대 말엽부터 조선왕조시대 중엽에 들어와서 남녀의 의복을 구별하기 위해 길이가 더욱 짧아지더니 조선왕조시대 말엽에 이르러서는 저고리가 너무 짧아 겨드

랑이의 살을 감추기 위해 넓이 1자되는 허리띠를 누벼서 양끝에 끈을 달아 겨드랑이 밑에 바싹 둘러 매고 그 위에 저고리를 입었으나 치마 허리가 다 보였다⁸⁾ 하며, 소매폭과 옷고름의 폭이 매우 좁아졌을 뿐만 아니라 화장·깃·안선·겉섶·끌동·고대·동정 등도 줄거나 작아졌고 다만 결마기만이 커졌다⁹⁾ 한다. 이러한 저고리 길이의 변화를 出土된 遺衣에서 살펴보면 1616년대에 63~80cm¹⁰⁾이던 것이 1704년대에는 41~46cm¹¹⁾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본 그림에 나타난 庶人女子의 服飾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髮 飾	服	靴 鞋
얹은 머리	치마(灰·淡青·淡褐色) 저고리(白·灰·玉·淡褐色)	짚신 또는 미 투 리

2. 兩班의 服飾

兩班服飾의 기본구조는 黑笠에 袍를 입고 級條帶를 띠고 있다. 黑笠의 경우 烏漆木纓인 듯한 笠纓이 달린 것은 有官者の 便服차림인 것 같고, 黑色 비단 纓子만 길게 달린 것은 일반 兩班階級이나 선비들의 常服차림인 것 같다.

袍에 있어서는 道袍·直領袍·鼇衣 등이 착용되었는데 소매는 모두 廣袖이며 色은 道袍는 青·白色이고 直領袍나 鼇衣는 青·白·灰·淡青·淡褐·반물색 등으로 되어 있다. 특히 道袍는 중치막과 같이 廣袖에 四幅이며 背後에 따로 垂幅이 있어 兩裾를 掩蔽케 한 閻衣¹²⁾로서 朝鮮中葉 이후 선비들이 가장 많이 착용했던 通常用의 禮服이다. 또한 道袍의 服色은 青·白二色이 있어 吉事에는 青色, 平時에는 白色을 착용했다¹³⁾고 한다. 그러나 宣祖實錄에는 李弘望이 草綠祫道袍를 입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겼다¹⁴⁾

7)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黃海·平安南北篇), 文化財管理局, 1980, p.198.

8) 黃孝榮, 한국여자저고리형태의 역사적 변천, 大한가정학회지 7권, 1975, p.25.

9) 이경자, 여자저고리 小考, 大한가정학회지 8권, 1976.

10) 金東旭, 壬亂前後期의 服飾構造, 東方學志 22, 延世大 國學研究院, 1979, p.47.

11) 金東旭·高福男, 重要民俗資料(服飾), 調查報告書 75號, 文化財管理局, 1979, p.148~168.

12) 崔南善, 朝鮮常識(風俗篇), 서울 東明社, 1948, p.821.

13)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道袍辨證說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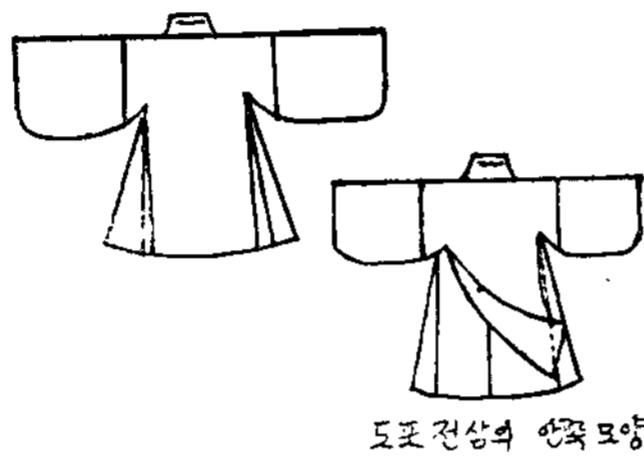
14) 宣祖實錄 卷 210, 四十年四月.

고 있고, 高宗皇帝 光武 11년의 英親王 冠禮時에는 藍色 道袍를 착용했다¹⁵⁾는 것으로 보아 道袍의 色은 여러 차례 变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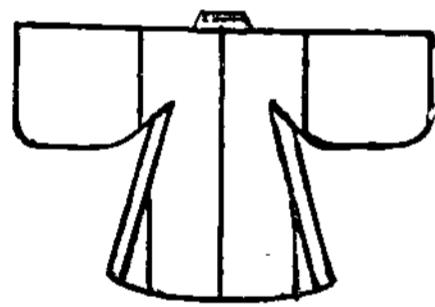
帶는 주로 黑色 細條帶를 띠었으나 廣多繪를 띠기도 하였으며 品階에 따라 帶의 色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品階가 높을 수록 桃色·紅色을 착용했다¹⁶⁾는 說에 의하면 青色 道袍를 입고 紅色細條帶를 띤 자는 品階가 높은 有官者인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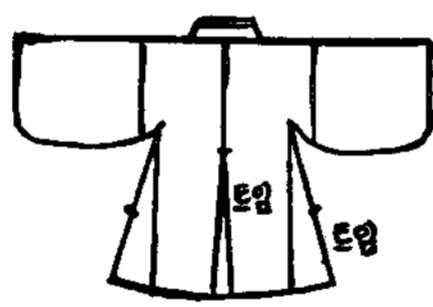
〔圖 4-1〕兩班의 服飾



〔圖 4-2〕道袍의 模型圖



〔圖 4-3〕直領袍의 模型圖



〔圖 4-4〕鼈衣의 模型圖

본 그림에 나타난 兩班의 服飾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冠	笠 飾	服	帶
黑笠	烏漆木纓 또는 黑色 비단 纓子	· 道袍(青·白色) · 直領袍(青·白·灰·淡青·淡褐) · 鼈衣(半물색)	細條帶 또는 廣多繪(黑·紅色)

3. 小兒의 服飾

小兒의 服飾은 바지·저고리만을 입기도 하고 袍를 입기도 했으며, 머리는 모두 뒤로 길게 빨

아 늘어뜨린 辨髮型으로서 黑色 냉기를 매었다.

바지는 통이 좁은 白色 바지를 입었는데 발목에 대님을 매기도 하고 行纏을 두르기도 했으며, 저고리는 窄袖로서 그 色은 白·淡青·연보라·미색 등이다.

袍에 있어서는 小鼈衣나 鼈衣를 입고 있는데 窄袖의 白·灰·淡褐·淡綠豆色 小鼈衣에는 帶를 띠지 않고, 廣袖의 青色·灰色·淡綠豆色 鼈衣에는 黑色 廣帶를, 淡褐色 鼈衣에는 紅色 廣帶를 각각 띠고 있다.

여기에서 볼 때 小兒들의 帶는 모두 廣帶이며, 兩班子弟는 廣袖袍인 鼈衣를 입고 庶人子弟는 窄袖袍인 小鼈衣를 입거나 바지·저고리만 입었음을 알



〔圖 5-1〕小兒의 服飾

衣에는 带를 띠었고 小鼈衣에는 带를 띠지 않은 것으로 보아 兩班子弟는 带를 두르고 庶人子弟는 带를 두르지 않음으로써 그 각각의 身分을 나타낸 듯하다.

본 그림에 나타난 小兒의 服飾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髮 飾	服	帶
辨髮型(하나로 땋아 길게 늘어뜨리고 黑色냉기)	· 바지(白色), 저고리(白·淡青·연보라·미색一窄袖)	
	· 小鼈衣(白·灰·淡褐·淡綠豆色一窄袖)	帶 없음
	· 鼈衣(青·灰·淡綠豆·淡褐色一廣袖)	黑色 또는 紅色 廣帶

4. 冠禮少年의 服飾

冠禮란 四禮의 하나인 成年禮로서 남자는 상투를 틀고 冠을 쓰며 여자는 쪽을 찌는 것을 말한다. 班人階級에서 새로 冠禮한 少年은 黑笠을

15) 金用淑, 宮中「撥記」의 研究, 鄭土 서울 18, 1963, p. 90.

16) 高福男, 우리나라 服飾 中 帶의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14권 1호, 1976.

쓸 때까지의 중간물로서 草笠을 쓰기도 하여 이들에게는 「草笠童」이란 呼稱이 붙게 되었다.¹⁷⁾ 草笠은 平涼子를 거쳐서 黑笠으로 옮겨가는 笠制 발달상의 한 단계의 것으로서 黑笠이 생겨나자 平涼子와 함께 常民의 쓰개가 되어서 別監(朱黃草笠, 國末에 淡黃色) · 細樂手(淡黃色) · 司僕(淡黃色) · 胄吏(淡黃色) · 倡優(淡黃色) 등이 國末까지 쓰고 있었다. 「經國大典」禮典 雜令에 보면 「土族의 草笠은 50竹이오, 庶인의 草笠은 30竹으로 한다」¹⁸⁾고 했는데, 竹의 數는 곧 織縷의 多寡에 의한 精粗의 差로서 粗 · 細를 표시하는 단위가 되어 날이 50竹이면 가늘고 고와 兩班階級이 쓰고 30竹이면 거칠고 굵어 庶인이 썼으며, 특히 草笠童이 쓰는 草笠은 黃色의 細草로 만들었다¹⁹⁾ 한다.

본 그림에 나타난 冠禮少年의 服飾은 黃色 草笠을 쓰고 銘衣를 입었는데, 草笠의 笠檐이 매우 넓으며 黑色 비단 纓子가 길게 달려 있고, 銘衣는 廣袖로서 青色 · 玉色 · 白色 등이다. 帶는 모두 黑色 廣帶를 띠고 있다.

새로 冠禮한 少年이 黑笠을 쓰게 될 때까지 帽巾 위에는 草笠을 쓰기도 한다²⁰⁾는 說이 있으나 그림에서 보면 幅巾은 쓰지 않고 상투를 둔 머리에 草笠을 직접 썼음을 알 수 있다.

본 그림에 나타난 冠禮少年의 服飾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冠	服	帶
黃色草笠	銘衣(青 · 玉色 · 白色 — 廣袖)	黑色廣帶



[圖 6-1] 冠禮少年의 服飾

二. 地方官衙 兩班의 服飾

李朝 때의 社會身分은 크게 良身分과 賤身分으로 兩分되어²¹⁾ 있었으나 良身分은 다시 兩班 · 中人 · 良人으로 分化되었으므로 사실상으로는 兩班 · 中人 · 良人(常人 · 平民) · 賤人으로 4區分되어²²⁾ 있었던 셈이다. 兩班概念은 원래 品官群을 指稱했지만 後에는 官品이 있는 자 외에도 고급관리에 임용될 자격이 있는 신분을 통칭하게 되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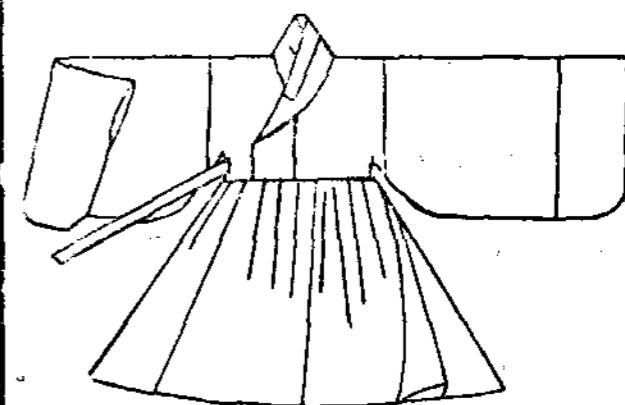
1. 監司의 服飾

牧民心書에 의하면 監司는 大坐起 같은 때에는 의당 團領袍 · 鞭帶 · 黑靴를 착용하고 의자에 앉아서 알현을 받아야 하며, 武事로 인한 大坐起 같은 때에는 의당 戎服(虎鬚笠 · 紗帖裏)을 갖추고 칼을 차야 한다.²⁴⁾ 그런데 본 그림에 나타난 監司는 黑笠에 帖裏(天翼)를 입고 칼은 차지 않고 앉아있는 것으로 보아 便服차림으로서 戎服을 입은 듯 보아진다. 金用淑은 이를 軍服으로 보아 鮎笠을 썼다²⁵⁾고 했으나 여기서는 黑笠을 쓴 것으로 하겠다.

監司의 服飾은 黑笠에 藍色 帖裏를 입고 紅廣帶(廣多繪)를 띠어 帶端를 길게 늘어 놓았으며,



[圖 7-1] 監司의 服飾



[圖 7-2] 帖裏의 模型圖

17) 崔南善, 前揭書, p. 118.

18) 經國大典 禮典 雜令條.

19) 黃互根, 韓國裝身具美術研究, 서울 一志社, 1978. p. 395.

20) 柳喜卿, 前揭書, p. 380.

21) 李成茂, 朝鮮初期 兩班研究, 서울 一潮閣, 1980, p. 2.

22) 上揭書, p. 395.

23) 李弘植編, 國史大事典, 서울 知文閣, 1965, p. 835.

24) 丁若鏞, 牧民心書, 律己 1條 飭躬,

25) 金用淑, 朝鮮朝後期 地方官衙의 服飾, 淑明女大論文集 17, 1977, p. 41. p. 41.

帶 앞 左側에 兵符가 든 주머니를 늘이고 있고 흰 베선을 신고 있다. 그리고 帖裏 속에는 흰 中單이 엿보인다.

黑笠에 있어서는 笠頂上에 玉頂子가 달려 있고 黃紅 兩色의 纓子가 달려 있으며 褐色의 안감이 엿보인다. 笠制에 대해서 「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文臣 堂上官 以上이 朱笠을 戎服之具로 삼았다」²⁶⁾고 있고, 「續大典」에는 「堂上三品 以上의 戎服에는 貝纓이 달린 柴笠을 쓴다」²⁷⁾고 있으며, 「大典會通」에는 「堂上三品 以上의 戎服에는 漆紗笠을 쓰되 貝纓은 폐지한다」²⁸⁾고 있고, 또 「經國大典」에는 「司憲府·司諫院 官員과 觀察使, 節度使의 笠飾에는 玉頂子를 使用한다」²⁹⁾고 있다. 그러나 時代에 따라 笠制에도 변천이 있었을 것이기에 본 그림에서도 보면 戎服에 玉頂子와 紅黃色 纓子가 달려 있는 黑笠을 썼음을 알 수 있다.

帖裏는 일명 天翼· 철리· 철닉· 철룩이라고도 하며, 「文士들이 便服으로, 燕服에서는 웃옷으로, 朝服에서는 中衣로, 後世에는 上下 各官의 戎服으로 입었다」³⁰⁾고 한다. 帖裏는 廣袖이며 허리에 주름이 많이 잡힌 上衣 下裳의 옷으로 「續大典」에는 「堂上三品 以上의 戎服은 藍色 帖裏를 착용한다」³¹⁾라 있다.

또 監司가 帖裏 위에 면 廣多繪의 色은 紅色인데 帶의 色은 品位에 따라 달리하였고 品位가 높을수록 紅色을 사용했다³²⁾고 한다.

그리고 戎服의 구성이 笠, 帖裏, 紅廣帶, 木靴 등이므로 본 그림에는 監司가 앉아 있어서 베선만 보이나 木靴를 신었을 것이다.

본 그림에 나타난 監司의 服飾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冠	笠 飾	服	帶	襪	靴鞋	佩物	기타
黑笠 (안감: 褐色)	玉頂子와 紅 黃色 纓子	藍色 帖裏帶	紅廣 베선	木靴	兵符	흰 中單	

26) 李圭景, 前揭書 卷 45, 笠制辨證說條.

27) 繼大典, 禮典 儀章條.

28) 大典會通, 禮典 儀章條.

29) 經國大典, 禮典 儀章條.

30) 李裕元, 林下筆記, 卷 17, 文獻指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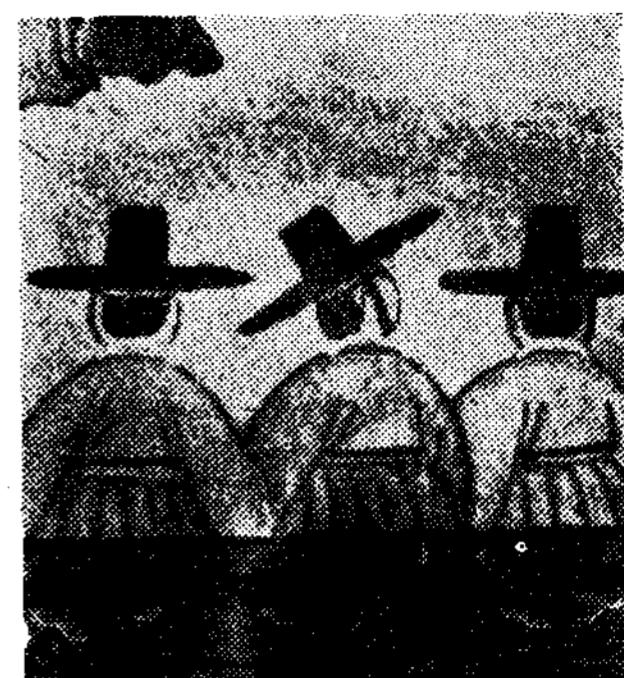
31) 繼大典, 禮典 儀章條.

32) 石宙善, 韓國服飾史, 서울 寶晉齋, 1978, p. 562.

2. 守令의 服飾

본 그림에서 監司와 同席하여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은 監司의 赴任을 歡迎하기 위해 청함을 받고 찾아 온 來賓守令 들인 것 같다.

이들의 服飾은 黑笠에 青色 帖裏를 입고 黑色 細條帶를 띠고 있다. 黑笠에는 黑



[圖 8-1] 守令의 服飾

色 布纓이 달려 있고 褐色의 안감이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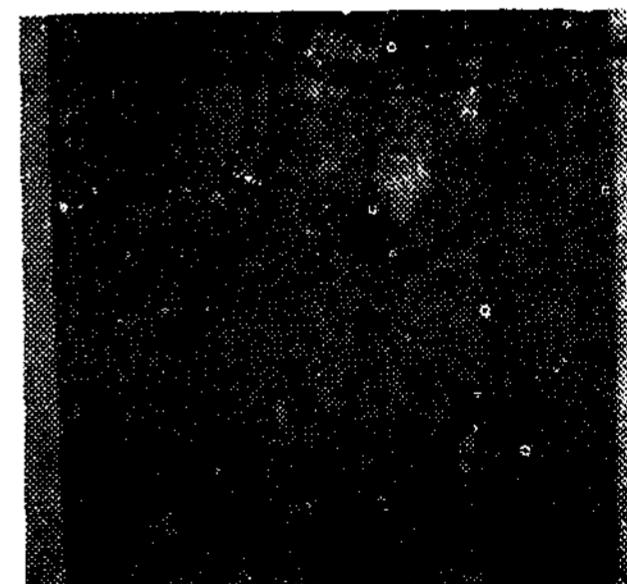
본 그림에 나타난 守令의 服飾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冠	笠 飾	服	帶
黑笠 (안감: 褐色)	黑色 布纓	青色 帖裏	黑色 細條帶

3. 補將의 服飾

본 그림에서 補將은 室內에서 監司 곁에 侍立하고 있기도 하고 室外에서 遊宴場面을 지켜보고 서 있기도 했다.

이들의 服飾은 黑笠에 青色 帖裏를 입고 黑靴子를 신고 있는데, 특히 黑笠에 銀入絲虎鬚를 前後 左右에 장식한 2명의



[圖 9-1] 補將의 服飾

補將은 紅廣帶를 띠고 있으며 그외는 장식이 없는 黑笠에 黑色 細條帶를 띠고 있다. 그리고 遊宴圖에 나타난

裨將들은 모두 左側 허리에 符信을 차고 있으며, 특히 虎鬚장식이 있는 黑笠에 紅廣帶를 떤 2명의裨將은 遊宴圖와 船遊圖에서 볼 때 등에 尾箭이 끊힌 弓箭통을 메고 있다.

裨將의 服飾을 「襄裨將傳」에서 보면 「前陪裨將 大緞天翼 廣大띠 純銀粧飾 쇄금하여 가진 弓箭 비끼차고 猪毛笠 密花貝纓 銀入絲猛虎鬚를 보기좋게 끊어 쓰고……」³³⁾라고 있고 「외을 망건·定州 탕건·快子·氈笠·광대띠·화살통……」³⁴⁾이라고도 있다. 또 「李春風傳」에서 보면 「외을 망건 珐瑯貫子 당줄 졸라 질끈 쓰고 계알같은 제주 탕건, 삼백 순 돌임 계양태 제모입에 엿돈 오픈짜리 銀鉤纓子 산호格子 두 귀 밑에 달아 놓고 통행전에 三升버선, 쌍코신에 쥐눈장을 다문다문 그어서 맵시있게 지어신고 兩色緞 윗저고리 자개묘초 양등거리 양피두루마기 熙川袖 겹鼈衣에 갑자 쇄자 將牌 띠로 흉당을 눌러 띠고……」³⁵⁾라고 있다. 여기에서 볼 때 양피두루마기가 등장한 것을 보면 最近世 甲午이후의 옷차림이라 할 수 있으나裨將은 사실상 天翼·鼈衣에 쇄자 이 두가지 복장을 並用했던 것 같다.³⁶⁾

虎鬚란 호랑이의 아래수염(頤毛)이라는 말인 데 이 虎鬚가 發生한 것은 麥穗에서 비롯된 것이다. 顯宗이 온천에 거동할 때에 보리 풍년이 크게 들었는데 임금이 매우 기뻐하여 扈徒하는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각각 보리 이삭을 끊어서 풍년을 기념하게 하였다. 그 후 군복에 虎鬚를 끊게 되었는데 가난하여 虎鬚를 갖추지 못하는 자는 혹 보리 이삭으로 대신하기도 했다³⁷⁾ 한다. 「英祖實錄」26년 9월條에 英祖가 果川縣을 行幸할 때 承旨 吳產儒가 昔時의 百官들의 笠上에 麥穗를 插飾했다가 그 후에 虎鬚를 장식했다³⁸⁾고 말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英祖代에 이르러 虎鬚를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본 그림에 나타난裨將의 服飾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冠	笠飾	服	帶	靴鞋	佩 物
黑笠	銀入絲 虎鬚	青色 帖裏	紅 廣 帶	黑靴子	符信, 弓 箭通
黑笠		青色 帖裏	黑色 細條帶	黑靴子	符 信

따라서 여기에서 볼 때 같은裨將이라도 虎鬚장식이 있는 黑笠에 紅廣帶를 떤 자가 地位가 높은 듯하고, 虎鬚는 牛笠·草笠에만 장식했던 것이 아니라 黑笠에도 장식했음을 알 수 있다.

4. 鄉任의 服飾

座首는 「要路院夜話記」에 보면 「나가면 鄉役에 앉고 官吏 뜰앞에 절하여 뵈고 들어는 令監을 對하며, 通引이 섬 앞에 뵈셨으니……」³⁹⁾라고 있고, 「牧民心書」에 보면 「賓席의 우두머리이니, 진실로 그 사람을 얻지 못하면 모든 일이 정리되지 않을 것이다」⁴⁰⁾라 있어 座首의 위치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座首와 別監과도 그 위치에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遊宴圖에서 보면 監司가 앉아 있는 浮碧樓의 옆에 따로 설치한 작은 幕 속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들이 座首·別監이 아닌가 한다. 이들의 服飾을 보면 座首인 듯한 자는 黑笠에 반물色 帖裏를 입고 紅廣帶를 띠고 있으며, 특히 黑笠에는 琥珀纓이 달려 있고 帽子의 左右와 笠頂上에는 玉장식이 있으며, 帖裏 속에는 환 中單이 엿보인다. 別監인 듯한 자는 아무 장식도 없는 黑笠에 青色 帖裏를 입

33) 全圭泰, 襄裨將傳, 韓國古典文學大全集 1, 서울 出宗出版社, 1970, p. 293.

34) 朴容九, 襄裨將傳, 韓國古代小說全集 1, 서울 乙酉文化社, 1962, p. 122.

35) 全圭泰, 李春風傳, 韓國古典文學大全集 1, 서울 出宗出版社, 1970, p. 423.

36) 金用淑, 朝鮮朝後期 地方官衙의 服飾, p. 45.

37) 李肯翊, 燃藜室記述 卷 13, 政教典故 冠服條.

38) 英祖實錄 26年 9月條.

39) 要路院夜話記, 古典文學大系本, 短篇小說選, p. 455.

40) 丁若鏞, 前揭書, 吏典 3條.

고 黑色 細條帶를 띠고 있다. 이와 같이 座首와 別監은 位置 뿐만 아니라 服飾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었던 듯하다.

본 그림에 나타난 이들 鄉任의 服飾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冠	笠 飾	服	帶	기타
座首	黑笠	琥珀纓 玉장식	반물색 帖裏	紅廣帶 회중단
別監	黑笠		青 色 帖裏	黑色 細綵帶

三. 土着下屬의 服飾

1. 衛前의 服飾

본 그림에는 많은 衛前들이 보이는데, 어들은 대부분 鞠躬하고 있다. 이들의 服飾은 黑笠에 淡青色 帖裏를 입고 黑色 細條帶를 띠고 있으며 흰 行纓를 두르고 미투리를 신고 있다.

黑笠의 形態는

高帽廣簷式이어서



[圖 11-1] 衛前의 服飾

어깨넓이보다 笠簷이 훨씬 넓은 것처럼 보인다. 黑笠은 朝鮮王朝 500년간 文武官의 便服에 착용되었고 兩班層에서 애용되었으나, 後期에 이르러서는 賤人層에도 착용이 허락되자 貴賤의 차별이 사라지고 일반화하기에 이르렀다. 黑笠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여러번 변천했으나 대략의 과정을 보면 朝鮮王朝 初期에는 明制의 高頂笠의 영향을 받아 帽가 높아지고 笠簷이 줄어든 平涼子形으로⁴¹⁾ 되어 있었고, 中期에 이르러서는 帽屋이 높고 帽頂이 平平해지고 笠簷이 넓어져서 高帽廣簷으로 되었으며 이것이 中宗代에 와서는 직경이 70纏 정도의 넓은 것이어서 서로 같이 兼用할 수 없을 정도⁴²⁾였는데, 이와 같은 广簷의 형태가 이후 國末까지 계속되면서 약간

의 변화만 있었다.

미투리는 형태가 매우 날씬하고 바닥이나 총이 조밀하게 되어 있으며 兩班·常人層 사이에서 많이 신었는데, 짚신의 총은 대략 29~30개 정도 세웠으나 미투리는 50~60개 정도 세웠다⁴³⁾ 한다.

본 그림에 나타난 衛前의 服飾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冠	服	帶	行 纓	靴 鞋
黑 笠	淡青色帖裏	黑色細綵帶	흰行纓	미투리

2. 軍校의 服飾

(1) 將校의 服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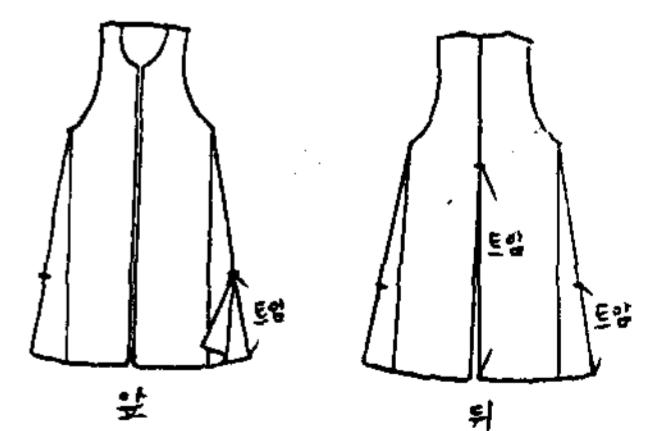
본 그림에서 遊宴圖에 2명, 船遊圖에 2명의 將校가 있는데 이들은 완전한 軍服 차림을 하고 있다. 이들은 密花纓이 달린 鮎笠에 붉은 梢毛와 孔雀尾를 달아 쓰고 狹袖袍(軍服)위에 褒襪를 입고 있으며, 허리에는 넓은 黑色 腰帶를 두른 위로 藍色 纓帶를 띠고 黑靴子를 신고 있다.



[圖 12-1] 將校의 服飾

또한 이들은 左側 등에 简介를 차고 简介의 한 부분을 左手로 잡고 있으며 右手로는 藤策를

쥐고 있고 등에는 尾箭이 꽂힌 弓箭통을 메고 있다. 그런데 狹袖袍의 色과 褒襪의 色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暗柴色 狹袖袍 위에는 暗綠色 褒襪을, 暗綠色 狹袖袍 위에는 暗柴色 褒襪을, 藍色



[圖 12-2] 褒襪의 模型圖

41) 金東旭, 增補 韓國服飾史 研究, p. 300.

42) 金東旭, 韓國服飾史, 韓國文化史大系 IV(風俗·藝術史篇),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1, p. 87.

43) 黃汎根, 前揭書, p. 438~439.

狹袖袍 위에는 暗紫色 褐襍를 각각 입고 있다. 그리고 鮎笠에는 藍色 雲紋緞의 안감이 엿보인다.

「漢陽歌」에 나타난 서울 營門의 大將의 服飾을 보면,

「안올린 병거지에 象毛의 孔雀羽며, 緋緞 軍服 羽緞 腰帶 環刀차고 동채 짊고, 密符 兵符껴서 차고 동개에 尾箭 끊고……」⁴⁴⁾

라 있다.

鮎笠은 戰笠이라고도 하며 「鮎」은 毛을 사용하여 만든 것을 말하는데, 光海 戊午年(1618年)에 명나라의 요청으로 우리 군사가 요동에 가서 청나라와 싸웠을 때에 鮎笠을 쓰는 자가 있어서 그것을 본받아서 사방으로 번지게 되었고, 丁卯年(1627年) 胡亂 때에는 士大夫도 간혹 썼으며 武人們은 大官이라도 모두 鮎笠을 쓰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⁴⁵⁾ 한다.

특히 品等이 높은 武官이 쓰는 鮎笠은 「안올림 병거지」라 하며 품질이 좋은 毛제인 孔雀尾·鶴毛와 玉鷺를 달고 涼太 안쪽에는 藍色 雲紋緞으로 꾸미고 密花纓을 달았고, 下輩들이 쓰는 鮎笠은 「병거지」 또는 「병태기」라 하며 粗雜한 豚毛를 사용하여 만들고 장식도 없었다.⁴⁶⁾

우리나라에서 褐襍를 입은 공식기록으로는 세종 26年(1444)에 사온사 柳守剛이 가져온 상복, 곤통포, 裏衣로서 褐襍가 보이는데, 이것은 애초에는 天翼 위에 입었던 것⁴⁷⁾이나 본 그림에서 보면 狹袖袍 위에 입었음을 알 수 있고, 朝鮮王朝末期에 이르러서는 具軍服(동다리) 위에 입게 되어 朝鮮王朝全期를 통하여 착용되었다. 褐襍는 無袖衣로서 양옆과 뒷솔기가 터져 있는 네자락의 옷이다.

본 그림에 나타난 將校의 服飾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冠	笠 飾	服	帶	靴鞋	佩物
鮎笠 (戰笠)	密花纓· 붉은 鶴毛·孔雀尾	·暗紫色 袍 위에 色 褐襍 ·暗綠色 袍 위에 色 褐襍 ·藍色 袍 위에 色 褐襍	狹袖 暗綠 狹袖 暗紫 狹袖袍 暗紫色 褐襍	넓은 黑色 腰帶 위에 藍色 纏帶	黑靴子 筒箇 藤策 弓箭通

(2) 使令의 服飾

본 그림에 나타난 使令들의 服飾은 구체적으로 4종류를 찾아 볼 수 있다.

첫째의 服飾은 2개의 孔雀尾가 끊힌 黑笠을 쓰고 灰色 袴裏를 입은 위에 黑色 號衣를 입고 黑色 細條帶를 띠었으며, 흰 行纏에 미투리를 신고 있다.

여기의 號衣의 形態는 快子와 같이 네자락이 아니고 양옆만 터진 세자락의 옷이다. 이들의 服飾을 國文學 作品에서 보면,

「판소리 春香傳」에

「孔雀尾 큰 깃 끊고 까치옷·防牌·철리·방울찬 使令이며……」⁴⁸⁾

라 있고,

「高大本 春香傳」에는

「都使令 치례 보소, 난무명 바지 돌지붕어 귀行纏에 팔날신, 八門天翼 까치옷에 細絹띠 잡아매고, 제주게량 삼백돌림 열두눈 박힌 孔雀尾에 방울차고 덜렁덜렁」⁴⁹⁾

라 있다.

孔雀尾는 공작의 풍자깃 무늬를 맞추고 길이 46cm, 넓이 15cm 정도로 엮어서 만드는데, 공작 풍자깃과 남빛의 새털을 한데 어울려서 펼쳐



〔圖 13-1〕 使令의 服飾

44) 漢陽歌, 韓國古典文學大系 7, 民衆書館, 1974, p. 149.

45) 李肯翊, 前揭書, 政教典故, 冠服條.

46) 沈載完·李殷昌, 韓國의 冠帽, 嶺南大 新羅伽倻文化研究所, 1972, p. 54.

47) 윤웅렬·이씨부인·윤치호 유품, 연세대박물관, 1976, p. 20.

48) 申在孝, 韓國 판소리 全集, 서울 瑞文堂, 1973, p. 27.

49) 春香傳, 韓國古典文學大系 10, 서울 民衆書館, 1970, p. 365.

손바닥같이 둥글넓적하고 아주 두툼하게 만들며, 양쪽에 꽂는 관계로 두개가 있어야 하고 鮎笠을 쓸 때는 鐘子에 잡아매어 孔雀尾가 흔들리게 했다.

둘째의 服飾은 붉은 梢毛가 달린 鮎笠(벙거지)에 褐色 小氅衣를 입고 그 위에 黃色 號衣를 입었으며 藍色 纓帶를 띠었고, 흰 行纏에 미투리를 신고 있다.

號衣는 俗稱 「더그레」라 하며 軍人·官隸 등 의 소속을 표시하는 上衣로서 양옆과 뒷솔기가 터진 베자락의 옷인데 그 소속에 따라 여러가지 빛깔이 있었다. 즉, 그 소속을 五方色으로 구분 해서 東은 青, 西는 白, 北는 黑, 南은 紅, 中央은 黃色이었다⁵⁰⁾고 한다.

纏帶는 將校 이상은 藍色 명주로 하고 軍卒은 무명으로 하되 솔기를 비비 틀어서 넓이 10cm, 길이 3m되게 만들고, 양쪽 끝을 터놓고 삼각형 이 되게 하여 양쪽 터진 곳으로 돈이나 물건을 넣고 허리에 차기도 하고 어깨에 메기도 했다.

세째의 服飾은 붉은 梢毛가 달린 鮎笠(벙거지)에 黑色 小氅衣를 입은 위로 灰色 號衣를 입고 藍色 纓帶를 띠었으며 흰 行纏에 미투리를 신고 있는데, 鮎笠의 涼太 안쪽에는 藍色 日光緞의 안감이 엿보인다. 이들은



〔圖 13-3〕 使令의 服飾

본 그림에서 주로 巡視旗·令旗·燈籠 등을 들고 있기도 하고 觀衆을 지휘하기도 했다.

네째의 服飾은 위의 세째 服飾과 같으나 붉은 梢毛가 달린 鮎笠 대신에 朱鮎笠을 쓰고 있다. 이들은 특히 朱杖·棍杖 등을 들고 있는 것을 볼 때 軍衙에서 죄인을 다루던 軍牢가 아닌가 한다. 朱鮎笠이란 軍牢복다기라고도 하며, 軍牢가 軍裝을 할 때 쓰던 것으로서 붉은 천으로 만드는데 반달모양의 형체를 하고 있고, 전을 겪어 올리고 앞에는 길이 10cm, 나비 8cm의 주석으로 만든 「勇」자를 붙이고 鐘子에는 青轉羽를 달았다⁵¹⁾ 한다. 이 설명의 形態는 본 그림에 나타난 것과 비슷하여 「圓行乙卯整理儀軌」 중 班次圖에 나타난 軍牢의 것과도 같은 것으로 보아 본 그림에 나타난 것이 朱鮎笠(軍牢복다기)이 아닌가 한다.

본 그림에 나타나 朱鮎笠을 보면 붉은 천 밑으로 藍色 천이 보이는데 이것은 안감으로 藍色 日光緞을 사용한 것이 엿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고, 鐘子에 달린 轉羽의 色이

藍色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地方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 보겠다.

이들의 服飾을 「판소리 春香傳」에서 보면 「都軍牢 거동 보소. 줄 넓은 벙거지에 藍日光緞 안을 올려, 증자 상모 날랠 용자, 매미귀 돈 공단끈에 겸은 군복, 붉은 홍의, 藍纏帶 졸라 매고, 창발은 미투리 신에 제비행전 졸라매고……」⁵²⁾

라고 있고,

「高大本 春香傳」에서 보면 「新延 軍奴 치례 보소. 人毛戰笠 누을 象毛 藍日光緞 안을 받혀 彩象毛 짚게 달아 날랠 勇字 딱 붙이고, 密花 두른 귀 纓子, 三升 軍服·紅衣·快子·石榴나무 棱杖에 난무명·열대 자를 화화친친 감아매고, 升子버선 귀行纏



〔圖 13-4〕 使令의 服飾

50) 金用淑, 朝鮮朝後期 地方官衙의 服飾, p. 53.

51) 李弘植, 前揭書, p. 196.

52) 申在孝, 前揭書, p. 32.

에 藍紡 수아 紬纏帶 띠를 胸中 눌러 잡아매고,」⁵³⁾
라 있으며,

「襄裨將傳」에서 보면

「구름같은 前後座次 左右有杖 번듯 들고 호들거려 들어갈 제 三絃手 吹打手며 前陪後陪 使令軍奴 三升 섭수 노랑 號衣 藍纏帶 눌러 떠고 人毛戰笠 우렁 槩毛 줄깃 달아 날랠 勇자 젓게 불게 쓰고 棍杖 朱杖 번듯 들고 쌍쌍이 늘어서서」⁵⁴⁾

라 있다.

여기에서 볼 때 軍牢는 사실상 朱氈笠과 병거지 두 가지를 並用했던 것 같다.

본 그림에 나타난 4종류의 使令의 服飾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冠	笠 飾	服	帶	行纏	靴鞋
黑 笠	2개의 孔雀尾	灰色 帖裏 에 黑色 號衣	黑色 細絲帶	흰行纏	미투리
氈 笠 (병거지)	붉은 槃毛	褐色 小氅衣 위에 黃色 號衣	藍色 纏帶	흰行纏	미투리
氈 笠 (병거지) (안감: 藍色 日光緞)	붉은 槃毛	黑色 小氅衣 위에 灰色 號衣	藍色 纏帶	흰行纏	미투리
朱氈笠 (軍牢 복 다기)	「勇」자, 藍轉羽				

(3) 吹打手의 服飾

吹打手란 軍中에서 吹樂器와 打樂器를 다루던 軍士를 말하며 吹打와 細樂을 겸한 대규모의 軍樂을 大吹打라 하는데, 主將이 坐起할 때, 隊門을 크게 여닫을 때, 또는 陵幸에 임금이 城門을 날 때에 大吹打를 취주하였다. 御前의 兼內吹를 비롯하여 서울의 五營門과 지방의 각 監營·兵營·水營 등에 있었으며 각 고을에는 小吹打가 있었다.⁵⁵⁾

본 그림에서 볼 때 이들은 나각·대각·북·호적·나발·점자·바라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들의 服飾은 크게 두 종류로 볼 수 있다.

그 중 한 종류는 吹螺赤의 服飾인데 吹螺赤이



[圖 14-1] 吹打手의 服飾

란 軍中에서 소리를 불던 吹打手를 말한다. 이들은 虎鬚장식이 前後 左右에 끼친 黑笠에 紅色帖裏를 입고 藍色 纏帶를 띠고 있으며, 흰 行纏에 미투리를 신고 있다.

다른 한 종류는 나각·대각 이외의 樂器를 다루는 吹打手의 服飾인데 이들은 모두 軍服차림이다. 즉, 붉은 槩毛가 달린 氈笠(병거지)에 黑色 小氅衣를 입은 위에 黃色 號衣를 입고 藍色 纏帶를 띠고 있으며, 흰 行纏에 미투리를 신고 있다. 특히 이들 대열 중에 있는 打鼓手는 소매 끝에 흰 汗衫을 끼고 있다.

이들 吹打手의 服飾은 「園行乙卯整理儀軌」 중班次圖에 나타난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이班次圖에서도 소리를 부는 사람은 帖裏차림이고 그외의 吹打手는 軍服차림이다.

또한 「漢陽歌」에 나타난 吹打手의 服飾을 보면 「兼內吹 牌頭 불려 吹打令 내려오니, 兼內吹 거동 보소. 草笠 위에 雀羽 끼고, 누른 철릭 藍纏帶에 鳴金三聲한 然後에 鼓動이 세번 울며 軍樂이 일어나니, 嚴威한 喇叭이며 哀怨한 胡笛이라. 旌旗는 飄飄하고 琴鼓는 堂堂하다. 한 가운데 吹鼓手는 흰 汗衫 두 복채를 一時에 數十名이 行鼓를 같이 치니, 듣기에도 좋거니와 보기에도 嚴威하다」⁵⁶⁾라고 있다.

53) 春香傳, p. 363~365.

54) 全圭泰, 襄裨將傳, p. 292.

55) 李弘植, 上揭書, p. 398.

56) 漢陽歌, p. 155.

여기에서 본 그림의 服飾과 漢陽歌 속의 服飾을 비교해 볼 때 笠飾과 帖裏의 色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京樣式과 地方樣式의 차이라고 보겠다.

본 그림에 나타난 吹打手의 服飾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冠	笠飾	服	帶	行纏	靴鞋
吹螺赤	黑笠	虎鬚 장식	紅色 帖裏	藍色 纏帶	흰 行纏	미투리
그외의 吹打手 (벙거 지)	氈笠 粟毛	붉은 衣 위에 黃色	黑色 小鑿 衣 號衣	藍色 纏帶	흰 行纏	미투리

3. 樂工의 服飾

李朝때 掌樂院에는 雜職 중에 雅樂을 맡은 樂生과 俗樂을 맡은 樂工이 있었는데 樂生은 良人 출신이고 樂工은 公賤 출신이었다. 원래 의식적인 音樂을 맡던 樂生은 樂工보다 우위에 있었으나 실제 音樂活動은 가장 미천한 樂工들의 손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⁵⁷⁾

본 그림에서 執拍樂師는 서 있고 나머지 樂工은 앉아서 해금 1, 향피리 2, 대금 1, 장고 1, 좌고 1로 三絃六角을 현성하고 있는데 이 三絃六角의 현성은 檀園의 「劍舞」[圖 15-1] 樂工의 服飾圖]에서도 볼 수 있다.



[圖 15-1] 樂工의 服飾

이들의 服飾을 보면 執拍樂師는 黑色 嘕頭를 쓰고 綠色 團領袍에 烏鞋帶를 띠었으며 黑皮靴를 신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樂工은 樂師와 같은 服飾이나 袍의 色이 紅色이다. 또한 이들은 모두 袍 속에 흰 명주 中單을 입고 있다.

幞頭는 紗帽와 비슷하고 그 帽子가 번듯 넓적하고 뿐이 기다랗게 뻗친 것이다.⁵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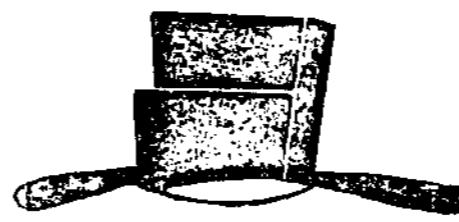
「漢陽歌」에 보면

「掌樂院 一等 樂生 茶紅 冠帶 也字帶에, 仙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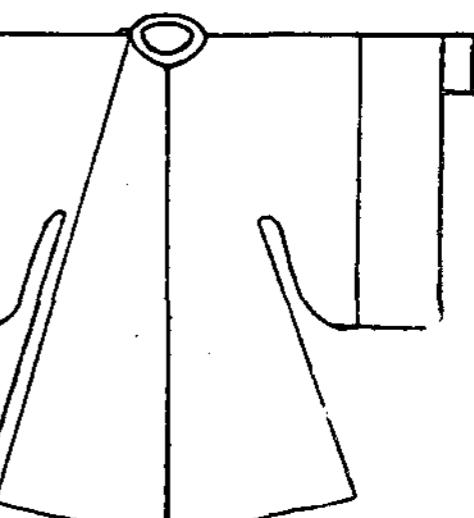
을 길게 내니……」⁵⁹⁾

라 하여 樂生의 服飾을 약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冠帶란 「관대」의 원말로 벼슬아치들이 입던 公服, 특히 團領을 일컫는 말이고 也字帶란 한편이 늘어져 「也」자 모양이 되는 띠를 말한다.

이들 服飾의 形態는 「樂學軌範」에도 자세히 나타나 있다.



[圖 15-3] 嘕頭의 模型圖



[圖 15-2] 團領袍의 模型圖



[圖 15-4] 黑皮靴의 模型圖

본 그림에 나타난 樂師와 樂工의 服飾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冠	服	帶	靴鞋	其 他
樂師	黑色 幞頭	綠色 團領袍	烏鞋帶	黑皮靴	흰 명주 中單
樂工	黑色 幞頭	紅色 團領袍	烏鞋帶	黑皮靴	흰 명주 中單

4. 官奴의 服飾

본 그림 속에는 여러 종류의 官奴가 보이고 또한 이들의 服飾에도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만을 택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첫째의 服飾은 白色 바지 저고리 위에 快子를 입고 黑色 廣帶를 띠고 있으며, 흰 行纏에 미투리를 신고 있다. 머리는 길게 땋아 늘인 蒙髮型으로서 黑色 냉기를 매었으며 快子의 色은 靑

57) 張師勛, 韓國樂器大觀, 韓國國樂學會, 1976, p.168.

58) 崔南善, 前揭書, p.130.

59) 漢陽歌, p.165.

色·玉色·褐色·綠色·灰青色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은 通引 혹은 房子가 아닌가 한다.

通引이란 吏胥·公賤 출신의 年少者로서 守令의 신변에서 呼召·使

喚에 應하는 侍童을 말하며, 房子란 「牧民心書」에 보면 아궁이에 불때기 등의 雜役을 하는⁶⁰⁾ 官奴라고 있으나 春香傳에서 보면 通引과 더불어 사또 子弟의 시중을 들기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高大本 春香傳」속에 있는 通引의 服飾은 「新延 通引 호사 보소. 甲紗 快子 紅亢羅 안을 받쳐 藍戰帶띠 놀려 매고……」⁶¹⁾라고 있다.

여기에서 藍戰帶를 띠었다는 것과 본 그림에 나타난 黑色 廣帶와는 차이가 있으나 이것은 지역적인 것인지 아니면 시대적인 것인지 의문을 남겨 둔다.

또한 같은 「高大本 春香傳」 속에 있는 房子의 服飾은

「房子놈의 호사보소. 대단腰帶 전주머니 갖은 매듭 맺어 차고 광자 바지 簡行纏에 三升목달이 겹벼선 全州 마침 총챙기를 종이 노로 들메이고, 절박머리 倭絹냉기 九龍水 늙은 龍의 굽이같이 늘어치고 浩浩히 나갈 격에……」⁶²⁾라고 있어 웃웃은 없고 바지·저고리 차림뿐이라는 표현인데, 모든 下隸들이 웃웃을 다 입었는데 房子만이 안입었을 것 같지는 않고, 金用淑도 그의 논문에서 「高大本 春香傳」의 房子 服飾의 묘사에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둘째의 服飾은 涼太敎는 黑色 帽子를 쓰고 紅色 帖裏에 藍色 廣帶를 띠고 있으며, 豈行纏에 미투리를 신고 있다. 머리는 길게 땋아 늘인 簪



[圖 16-1] 官奴의 服飾



[圖 16-2] 官奴의 服飾

髮型으로서 黑色 냉기를 매고 있다. 船遊圖에서 보면 이들은 淡柴色 帖裏를 입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본 그림에서 儀仗을 들고 있는데 머리를 길게 땋아 늘인 것으로 볼 때 年少者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이들과 첫째의 服飾에서 설명했던 快子를 입은 자들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 듯한데, 職務에 따라 다른 것인가 혹은 年齡에 따라 다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세째의 服樂은 黑笠에 暗灰色 直領袍를 입고 黑色 細條帶를 띠었으며, 豈行纏에 미투리를 신고 있다. 黑笠의 모양을 보면 涼太 안쪽에 暗灰色 안감이 엿보이며 笠上에는 黑色 小形裝飾이 붙어 있다.

이와 같은 服飾을 한자가 遊宴圖속에 3명이 있는데 그 중 1명은 紅色 細條帶를 띠고 있다. 이들은 浮碧樓 아래에 있는 永明寺의 창고문을 지키고 서 있는 것으로 보아 庫直이 아닌가 한다.

네째의 服飾은 白色 둥근 粟毛가 달린 鮎笠에 반물색 小擎衣를 입고 黑色 細條帶를 띠고 있으



[圖 16-3] 官奴의 服飾



[圖 16-4] 官奴의 服飾

60) 丁若鏞, 前揭書, 吏曹 驅徒條.

61) 春香傳, p.365.

62) 上揭書, p.295.

며, 원쪽 어깨에서부터 오른쪽 옆구리를 향해 비스듬이 넓적한 紅色 肩帶를 띠고 흰 行纏에 미투리를 신고 있다.

이들은 본 그림에서 말을 끌기도 하고 轎子를 들기도 하며 日傘을 들기도 하는 것을 볼 때 駕徒인 듯하다.

「漢陽歌」에 나타난 駕徒의 服飾을 보면

「거덜이며 牽馬夫는 草笠의 넓은 갓끈, 누른 紗 더그레며 푸른 긴옷 병거지며」⁶³⁾

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덜」은 司僕寺에서 말 먹이던 下人⁶⁴⁾을 일컫는 말이다.

漢陽歌에는 누런 紗 더그레(快子)를 입었다고 했는데 본 그림에서는 快子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차이는 京樣式과 地方樣式에서 오는 것인 듯하다.

본 그림에 나타난 官奴의 服飾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髮飾	冠	笠飾	服	帶	行纏	靴鞋
辮髮型 (黑色 幘)			白色 바지 · 저 고리 위에 快 子(青 · 玉 · 褐 · 綠 · 灰青色)	黑廣帶	흰 行纏	미투리
辮髮型 (黑色 帽子)	無涼太 黑色 帽子		帖裏(紅色 또 는 淡紫色)	藍色 廣帶	흰 行纏	미투리
	黑笠 (안감: 暗灰色)	笠頂上 에 黑 色小形 장식	暗灰色 直領袍	細絲帶 (黑色 또는 紅色)	흰 行纏	미투리
	氈笠	白色 등근 梨毛	반물색 小氅衣	黑色 細絲帶 紅色 肩帶	흰 行纏	미투리

5. 官婢의 服飾

(1) 妓女의 服飾

官妓는 대략 15세부터 50세까지가 時仕가 되며 나이어린 妓生을 童妓, 이의 반대의 경우가

老妓다.⁶⁵⁾ 李朝 때 妓女의 수는 대개의 경우 縣에 20명(水汲婢 포함), 郡에 40명, 牧·府에 60~80명, 監營에 100~200명 등으로 추산된다⁶⁶⁾고 하며, 「平壤志」에 보면 180명,⁶⁷⁾ 「平壤續志」에 보면 營屬 45명, 府屬 39명⁶⁸⁾으로 나타나 있다.

妓女란 원래 사치노예로서 남성들을 위한 路柳牆花로 존재한 인생들이었으나 그들은 身分의 으로 八賤의 하나였으나 服飾禁制에서는 벗어나 兩班과 같이 비단옷을 입을 수 있고 노리개를 쳐 수 있었으며, 皮鞋를 신을 수 있도록 許用된 것은 실은 남성들 자신의 눈의 保養을 위한 것이다.⁶⁹⁾

1) 成人 妓女의 服飾

본 그림에 나타난 妓女의 服飾은 치마 · 저고리만을 입고, 머리는 트레이머리를 하고 그 위에 모두 黑色 加里麼를 이고 있다. 저고리는 몸에 꼭끼는 窄袖이며 치마는 길고



폭이 넓은 데다가 속옷을 겹겹이 많이 입어서 볼륨을 느끼게 한다. 치마 · 저고리의 색을 살펴 보면 紅치마에는 黃色 · 綠色 · 白色 · 玉色 등의 三回裝저고리를 입었고, 藍치마에는 綠色 · 白色 · 軟粉紅色 · 綠豆色 등의 三回裝저고리를 입었다.

특이한 것은 妓女는 上流 · 貴族과 混同되지 않도록 삼회장저고리는 不許했고 반회장저고리를 입었다⁷⁰⁾는 說이 있으나 본 그림에서 보면 모두 삼회장저고리를 입고 있으며 회장감의 색은 저고리의 색에 관계없이 모두 濃褐色이라는 것이다.

63) 漢陽歌, p. 101.

64) 上揭書, p. 100.

65) 金東旭, 李朝妓女史序說, 亞細亞女性研究 5, 淑明女大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 1966, p.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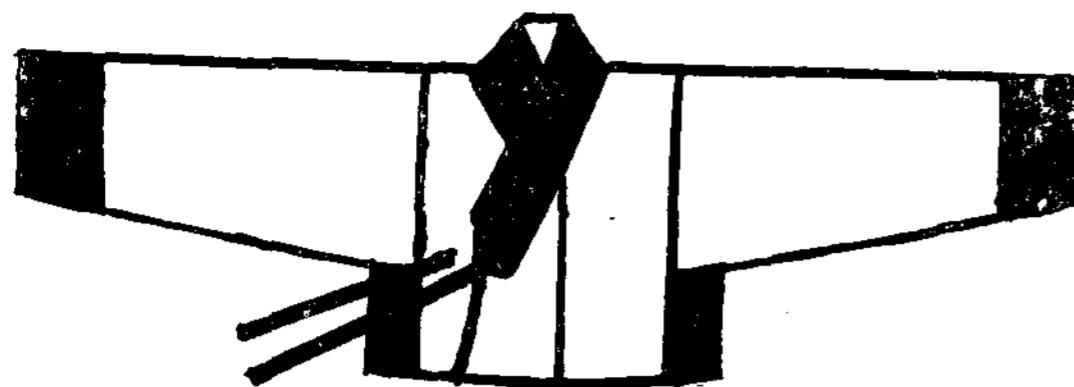
66) 上揭書, p. 81.

67) 尹斗壽, 前揭書, 教坊.

68) 尹斗壽, 前揭書, 教坊.

69) 金用淑, 朝鮮朝後期 地方官衙의 服飾, p. 60.

70) 石宙善, 前揭書, p. 473.



〔圖 17-2〕 三回裝저고리의 模型圖

치마와 저고리 사이에는 白色 허리가 넓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저고리와 치마 사이의 격드랑 밑을 가리기 위해 생겨난 가리개用 허리띠⁷¹⁾인 듯하다.

특히 妓女들의 髮飾에 있어서는 머리를 길게 땋아 柴赤色이나 黑色 냉기를 들여서⁷²⁾ 머리 위에 크게 틀어 올려 트레머리를 하고 加里麼를 얹었다.

이 加里麼는 加里尓라고 하며 正祖 12年 10月 加髢의 代身으로 賤民女에게 쓰도록 法令으로 내려진 것이다.⁷³⁾

妓女들의 服飾을 「高大本 春香傳」에서 보면 「戶長이 妓生 都案 들고 엎드리니 80명 妓生이 가리마 쓰고 늘어 앉으니……」⁷⁴⁾
「外貌 같은 美色들은 綠衣紅裳 흘날리며 지야 지야 노래하고……」⁷⁵⁾

라 있고, 「漢陽歌」에서 보면 「毛緞 三升 가리마를 앞을 덮어 죽여 쓰고…」⁷⁶⁾

라 있으며, 「五州衍文長箋散稿」에서 보면 「妓女는 黑褐의 加尼麼를 이고, 醫女는 黑緞의 加尼麼를 着한다. 그 모양이 冊匣과 같다. 髢髻 위에 있다.」⁷⁷⁾

라 있고, 「京板 春香傳」에 나타난 春香의 치례를 보면

「黑雲같은 흘은 머리 반달같은 臥龍梳로 쓸쓸 흘리 빗겨, 剪板같이 넓게 땋아 柴芝및 亢羅 넓은 냉기 맵시 있게 드렸구나. 白苧布 깨끼

적삼, 보랏빛 大緞 속저고리, 물명주 고장바지, 白紡 水禾紬 넓은 바지, 光月紗 결마기, 鷲鳳 亢羅 大緞 치마 잔살 잡아 펼쳐 입고, … …」⁷⁸⁾

라 있다. 여기에서 결마기란 「隔莫音」이라 하여女子의 웃옷인 삼회장저고리를 뜻한다.

본 그림에 나타난 成人妓女의 服飾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髮 飾	服	회장감의 색 : 濃褐色
트레머리 위에 黑色 加里麼	· 紅치마에 黑·綠·白·玉色 三回裝저고리 · 藍치마에 綠·白·軟粉紅·綠豆色 三回裝저고리	

2) 童妓의 服飾

본 그림에 나타난 童妓는 圖 17-1에서 보듯이 紅치마에 黃色·綠色 三回裝저고리를 각각 입고 있으며 成人妓女의 저고리와 같이 회장감의 색은 濃褐色이다.

특히 이들의 髮飾을 圖 17-1에서 보면 絲陽머리를 하고 납색 비녀를 끊고 있다. 絲陽머리는 새앙머리라고도 하며 머리를 좌우 귀 두 밑에서 두 갈래로 갈라서 땋은 머리인데, 宮中에서는 이것을 다시 틀어 올려 아래 위로 두 덩어리가 지게 냉기로 잡아 매었으나 民間에서는 비녀를 끊어서 새앙낭자라고도 했다.

본 그림에 나타난 童妓의 服飾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髮 飾	服	회장감의 색 : 濃褐色
새앙머리에 납색 비녀 (새앙낭자)	紅치마에 黃·綠色 三回裝저고리	

71) 柳喜卿, 前揭書, p. 499.

72) 朴京子, 蕙園風俗畫에서 본 우리 옷의 멋, 성신사대논문집 3, 1970, p. 106.

73) 正祖實錄 26, 12年 10月 辛卯條.

74) 春香傳, p. 369.

75) 春香傳, p. 369.

76) 漢陽歌, p. 133.

77) 李圭景, 前揭書 卷 15.

78) 春香傳, p. 221.

3) 舞妓의 服飾

본 그림 중 「遊宴圖」에는 蓮花臺舞·處容舞·劔舞·拋毬樂·舞鼓 등을 추고 있는 舞妓들이 있다. 원래 이들이 입는 舞服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樂學軌範」에 실려 있으나 그 설명과 본 그림 중에 있는 服飾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것은 宮中에서의 地方에서의 차이가 아님か 한다.

본 그림에 나타난 舞妓들의 服飾을 보면

① 蓮花臺舞의 服飾

平服차림의 成人妓女가 花冠을 쓰고 앞 뒤 네자락으로 갈라진 綠色蒙頭里를 입고 濃褐色帶를 띠었으며, 霞帔를 양 어깨에 걸쳐 앞으로 길게 늘어 놓리고 있다. 이 蒙頭里는 團領으로서 소매끝과 도련에는 濃褐色천이 대어져 있고 소매가 매우 길어서 마치 汗衫을 두른 듯이 보인다. 이 같은 차림의 舞妓가 2명이고, 또 다른 2명은 蒙頭里의 色에 차이가 있어서 앞뒷길은 黃色 바탕에 雲霞 무늬가 있고 소매는 藍色이다. (圖 18-1)



[圖 18-1] 舞妓의 服飾
(蓮花臺舞服)

② 處容舞의 服飾

平服차림의 成人妓女가 處容假面을 쓰고 五方色(青·紅·黃·黑·白色) 雲霞衣를 입고 藍色 帶를 띠었으며, 소매 끝에는 白色汗衫을 늘이고 있다. 處容假面에는 꽃을 左右에 끼운 懷頭가 함께 달려 있다. (圖 18-2)



[圖 18-2] 舞妓의 服飾
(處容舞·拋毬樂服)

③ 拋毬樂의 服飾

平服차림의 成人妓女가 더그레를 입고 藍色帶를 띠고 있는데, 더그레의 色은 黃色·淡褐色 등이며 紅色

花紋이 있다. (圖 18-2)

④ 劍舞의 服飾

平服차림의 成人妓女가 黃은 梨毛와 孔雀尾가 달린 蓪笠을 쓰고 더그레를 입고 藍色 纏帶를 띠고 있는데, 더그레의 色은 綠色·暗紫色 등이다. (圖 18-3)



[圖 18-3] 舞妓의 服飾
(劔舞服)

⑤ 舞鼓의 服飾

平服차림의 成人妓女가 더그레를 입고 藍色帶를 띠고 있으며, 소매 끝에는 白色汗衫을 늘이고 있다. 더그레의 色은 綠豆色·黃色·暗紫色 등이며 특히 黃色 더그레에

는 紅色花紋이 있다. (圖 18-4)

본 그림에 나타난 舞妓들의 服飾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冠	服	帶	其他
蓮花臺舞	花 冠	치마·저고리 위에 綠色蒙頭里 또는 黃色(소매는 藍色) 蒙頭里를 입고 霞帔	濃褐色帶	
處容舞	處容假面 (꽃장식 懷頭가 달려 있음)	치마·저고리 위에 五方色(青·紅·黃·黑·白色) 雲霞衣	藍色帶	白色汗衫
劔舞	虧 笠 (黃은 梨毛와 孔雀尾가 달려 있음)	치마저고리 위에 더그레(綠·暗紫色)	藍色纏帶	
拋毬樂		치마·저고리 위에 더그레(黃·淡褐色)	藍色帶	
舞鼓		치마·저고리 위에 더그레(綠豆·黃·暗紫色)	藍色帶	白色汗衫

(2) 水汲婢의 服飾

水汲婢는 官衙에 떨려 물긷는 일을 맡아보던 雜役婢로서 地方에 따라서는 水汲婢가 會宴 때 기생으로서 행세하기도 했다.⁷⁹⁾

이들은 다른 妓女들의 화려한 服飾과는 대조적으로 우중충한 옷차림을 하고 있다.

즉, 반물색 치마 [圖 19-1] 水汲婢의 服飾에는 白色 · 軟粉紅色 · 綠豆色 등의 半回裝 저고리를 입고 藍色 치마에는 玉色 · 米色 등의 半回裝 저고리를 입었는데, 회장감의 色은 다른 妓女들의 저고리와 같이 濃褐色이다. 치마는 길이가 짧고 폭이 좁으며 치마 밑으로는 바지 가랑이가 다 보인다.

머리모양은 제 머리만으로 틀어 올린 것 같고 加里麼도 없다.

水汲婢의 服飾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圖 19-1] 水汲婢의 服飾

髮 飾	服	
제머리로만 트레머리 (加里麼 없음)	반물색 또는 藍色 치마 에 半回裝저고리(저고리 색: 白 · 玉 · 米 · 軟粉紅 · 綠頭色)	회장감의 색: 濃褐色

III. 맷 음 말

이상에서 檀園 金弘道(1745~1818?)의 「平安監司 歡迎圖(坐起圖 · 遊宴圖 · 船遊圖)」를 歷史的 · 繪畫的으로 간단히 고찰한 후에 여기에 나와 있는 服飾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특히 服飾史의 고찰에 있어서는 아래는 官奴婢와 庶人에서부터 위는 守令과 監司에 이르기까지 거의 빠짐없이 여러 계급을 다루었다고 하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거의 비슷한 시대의

國文學 作品 중에서 특히 服飾描寫가 잘 나타나 있는 몇가지를 택하여 보다 확실한 연구가 되도록 노력해 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服飾, 특히 18세기의 服飾을 풍속도와 문학작품을 결부시켜 본 것이며, 충분한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본 그림은 중요한 복식자료이고 또한 귀중한 文化財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몇가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庶人 男女服에 있어서 男服의 기본은 바지 · 저고리이며 그 위에 小氅衣를 입었고, 女服의 기본은 치마 · 저고리이다. 이들은 白衣를 즐겨 입었고 주로 담백한 색조를 의상에 써 왔으며, 형태는 활동에 편리한 窄袖型이다.

2) 兩班은 바지 · 저고리 위에 주로 道袍를 입었고 그 외에 直領袍나 麞衣를 입기도 했는데 형태는 廣袖型이다.

3) 冠에 있어서는 貴賤의 구별없이 주로 黑笠을 썼으며 직책에 따라 玉頂子, 孔雀尾, 虎鬚, 纓子 등의 笠飾을 하기도 했다.

4) 地方 官衙의 文官들은 便服차림으로 戎服인 帖裏를 착용했으나 武官들은 활동에 편리한 狹袖 戰服을 입었다.

5) 袍 위에 띤 帶는 品階에 따라 色에 차이가 있어서 品階가 높은 자가 紅廣帶를 띠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黑色 細條帶를 띠고 있다.

6) 妓女는 모두 삼회장저고리를 입고 있으며, 頭飾에 있어서 成人 妓女는 黑色 加里麼를 염고 있고 童妓는 絲陽머리를 하고 비녀를 꽂고 있다. 그러나 水汲婢는 모두 반회장저고리를 입고 있고 머리에 加里麼도 없으며 服色도 우중충한 색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몇가지 결론을 얻었는데, 혹시 잘못 표현되었거나 誤謬을 범했을지도 모르나 다만 여기에 나타난 여러 服飾들이 18세기의 것들이니만큼 空白의 시대인 이 시대에 대한 하나의 資料가 되었다고 하겠다.

79) 金東旭, 李朝妓女史序說, p. 80.

參 考 文 獻

1. 姜淳弟, 韓國笠制의 變遷에 관한 研究, 服飾 創刊號, 韓國服飾學會, 1977.
2. 經國大典.
3. 高福男, 우리나라 民俗舞의 服飾構造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1권 2호, 1973.
4. 高福男, 우리나라 服飾 中 帶의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14권 1호, 1976.
5. 國立民俗博物館, 國立民俗博物館, 國立民俗博物館, 1980.
6. 國사편찬위원회, 韓國史 10(조선), 문교부 國사편찬위원회, 1977.
7. 金東旭, 增補 韓國服飾史研究,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9.
8. 金東旭, 韓國服飾史, 韓國文化史大系 IV(風俗·藝術史篇),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1.
9. 金東旭, 王亂前後期의 服飾構造, 東方學志 22, 延世大 國學研究院, 1979.
10. 金東旭, 우리 服飾에 있어서의 便服袍制의 變遷에 대하여, 東方學志 7, 延世大 國學研究院, 1963.
11. 金東旭, 李朝妓女史序說, 亞細亞女性研究 5, 淑大 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 1966.
12. 金東旭·高福男, 出土 朝鮮時代遺衣의 服飾史的研究, 服飾 2호, 韓國服飾學會, 1978.
13. 金東旭·高福男, 重要民俗資料(服飾), 重要民俗資料調查報告書 75號, 文化財管理局, 1979.
14. 金東旭·劉頌玉, 廣州李氏衣服 一括遺物, 重要民俗資料調查報告書 80號, 文化財管理局, 1979.
15. 金萬熙, 民俗圖錄 I, II, III, 韓國民俗畫資料叢書, 서울 尚美社, 1977~1979.
16. 김미자, 民庶便服袍의 옷깃에 대한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14권 1호, 1976.
17. 金用淑, 朝鮮朝後期 地方官衙의 服飾, 淑明女大論文集 17, 1977.
18. 金用淑, 宮中「撥記」의 研究, 향토서울 18, 1963.
19. 金千興·崔 賢, 蓮花臺舞, 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 71號, 文化財管理局, 1970.
20. 金惠宣, 英祖·正祖時代 以後의 女子髮風에 대하여, 사학회지, 연세대사학연구소, 1964.
21. 大典會通.
22. 文化財研究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黃海·平安南北篇), 文化財管理局, 1980.
23. 朴京子, 蕙園 風俗畫에서 본 우리 옷의 멋, 성신사대논문집 3, 1970.
24. 朴容九, 襫裨將傳, 韓國古代小說全集 1, 서울 乙酉文化社, 1962.
25. 石宙善, 韓國服飾史, 서울 寶晉齋, 1978.
26. 宣祖實錄.
27. 成慶麟·金琪洙, 大吹打, 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 69號, 文化財管理局, 1970.
28. 成 倪, 樂學軌範.
29. 繢大典.
30. 申在孝, 韓國班 소리全集, 서울 瑞文堂, 1973.
31. 沈載完·李殷昌, 韓國의 冠帽, 嶺南大新羅伽倻文化研究所, 1972.
32. 安輝濬, 韓國繪畫史, 서울 一志社, 1980.
33. 英祖實錄.
34. 温陽民俗博物館, 圖說 韓國의 民俗, 서울 啓蒙社, 1980.
35. 要路院夜話記, 古典文學大系本「短篇小說選」.
36. 柳喜卿, 한국복식사 연구, 梨花女大 出版部, 1977.
37. 柳喜卿, 李朝의 百官服, 又棠 趙坼烘 先生 華甲記念 家政學論文集, 1968.
38. 柳喜卿, 우리나라의 冠帽, 대한가정학회지 4권.
39. 尹斗壽, 平壤誌.
40. 윤웅렬, 이씨부인·윤치호 유품, 연세대박물관보고(역사유물 1), 1976.
41. 尹 游, 平壤續誌.
42. 園行乙卯整理儀軌.
43. 이경자, 여자 저고리 小考, 대한가정학회지 8권, 1976.

44.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45. 李肯翊, 燃藜室記述 卷 13.
46. 李能和, 朝鮮女俗考, 翰南書林·東洋書院, 1927.
47. 李明姬, 道袍에 관한 연구, 韓國衣類學會誌 1권 1호, 1977.
48. 李成茂, 朝鮮初期兩班研究, 서울一潮閣, 1980.
49. 李裕元, 林下筆記 卷 17.
50. 李朝女性研究, 한국여성연구총서 1집, 涼明女大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 1976.
51. 李弘植, 國史大事典, 서울知文閣, 1965.
52. 李勲鍾, 國學圖鑑, 서울一潮閣, 1980.
53. 任明美, 褙子考, 大한가정학회지 16권 2호.
54. 任明美, 介胄와 軍服과 戎服에 관한 연구, 韓國衣類學會誌 3권 1호, 1979.
55. 張師勛, 韓國樂器大觀, 韓國國樂學會, 1976.
56. 全圭泰, 襫裨將傳, 韓國古典文學大全集 1, 서울出宗出版社, 1970.
57. 全圭泰, 李春風傳, 韓國古典文學大全集 1, 서울出宗出版社, 1970.
58. 丁若鏞, 牧民心書.
59. 正祖實錄.
60. 震檀學會, 韓國史(近世前期篇), 서울乙酉文化社, 1962.
61. 震檀學會, 韓國史(近世後期篇), 서울乙酉文化社, 1962.
62. 崔南善, 朝鮮常識(風俗篇), 서울東明社, 1948.
63. 春香傳, 韓國古典文學大系 10, 서울民衆書館, 1970.
64. 平壤誌 刊行會, 平壤誌, 平南日報社, 1964.
65. 평안남도지편찬위원회, 平安南道誌, 平南民報社.
66. 韓國의 民俗藝術, 韓國文化藝術振興院, 1978.
67. 漢陽歌, 韓國古典文學大系 7, 서울民衆書館, 1974.
68. 許英桓, 東洋畫 1,000年, 서울悅話堂, 1978.
69. 黃沴根, 韓國裝身具美術研究, 서울一志社, 1978.
70. 黃孝營, 한국여자저고리 형태의 역사적 변천, 대한가정학회지 7권, 1975.

Abstract

A Study on Dress and its Ornament seen on the Picture of Welcoming the Governor of Pyongan Province

Lee Joo-Won

This article briefly researched the Picture of Welcoming the Governor of Pyongan Province painted by Kim Hong-do, penname Danwon(1745—1818?). The Picture was composed of three parts and its historical and pictorial back-ground were reviewed firstly. And later the dress and its ornament appearing on the Picture were studied. In the historical viewpoint of dress and its ornament, the Picture shown all sorts of dress from lower class maids and servants to higher officials-dignatories and governor, and dealt with nearly all dresses. In order to support and to make better understand the dresses of that age, some Korean literary works of the same period depicting the dress and its ornament were also selected.

This article dealt with the dress and its ornament, especially that of 18th century of the Yi Dynasty, and comparatively studied for our folk painting with literary works. Also the picture

enabled to make this study was an important data of our old dress and its ornament. This painting was considered as one of our cultural treasures.

Several conclusions drawn out from this study as followings :

- 1) In male and female dress of lower class people; male dress was consist of trouser and coat, and coat, and over the coat SOCHANGYI were used. Female dress was basically consist of skirt and these were white color of their favourite. Mainly simple color was used for clothing and its dress style were CHAKSOO-HYONG (narrow sleeve style) which convenient for a work.
- 2) Yangban's dress was consist of trouser, coat and over the coat, usually DOPO(over-coat) were used and some case JICKRYONGPO (a sort of over-coat) or CHANGYI were also used. These were GWANGSOO-HYONG (wide sleeve style) of inconvenient for a work.
- 3) In head-gear, there was no difference of the higher and the lower. They usually used HEUCKRIP (black Korean hat). The OCKJUNGJA, GONJAKMI (peacock tail), HOSOO (tiger beard), and YOUNGJA (chin strip) were used according to officials ranks as head-gear's oraments.
- 4) Local petty officials used ordinary dress and CHUPRI (warn-dress) were also used by them, and military officials used war-dress of tight sleeve.
- 5) The belting of over-coat are different in color according to official grade. The higher grade wore red-wide belt, but generally black narrow belt for ordinary officials.
- 6) All KISAING girl wore SAMHYEOIJANG upper coat. And their head ornament were black KARIMA for grown KISAING. SAYANG hair for DONGKI or maiden KISAING and BINYEO (an ornamental rod of women's hair) were inserted into the hair of rear down part of head. The water carring maid wore BANHYEOIJANG upper coat and no KARIMA were on head and their coat were gloomy color.

Above mentioned are several conclusions, and there might be a false or erroneous explanations of 18th century dress and its ornament, however I considered they were data for blank period of quite unknown.